

충북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충청권 경제협력

설영훈(충북연구원)

忠
清

충북경제의 현 주소, 그리고 충청권 경제협력

2017. 12. 1.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성장동력연구부
연구위원 설영훈

CONTENTS...

I. 충북경제의 현 주소

II. 충북경제의 성장요인

III. 충북경제의 특징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V.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 도약을 위해서

VI. 충청권 경제협력

I . 충북경제의 현 주소

I . 충북경제의 현 주소

충북의 경제규모

- 충북의 2015년 실질 GRDP는 50.3조원으로, 전국 GDP의 3.44%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전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며 4% ~ 7%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최근 5년 간(2011년~201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66%에 달함
- 제주(5.22%) → 충남(4.76%) → 충북(4.66%), 전국(2.82%)

〈시도별 GRDP 및 경제성장률〉

(단위 : 조원, %, 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중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CAGR	
전국	1,308.9	1,339.0	1,376.1	1,422.2	1,462.7	100.0	2.85	순위	2.82	순위
대전광역시	28.7	29.1	29.4	30.3	30.8	2.11	1.65	12	1.79	13
충청북도	41.9	42.8	45.9	48.1	50.3	3.44	4.50	2	4.66	3
충청남도	88.8	92.0	98.0	103.0	107.0	7.31	3.83	4	4.7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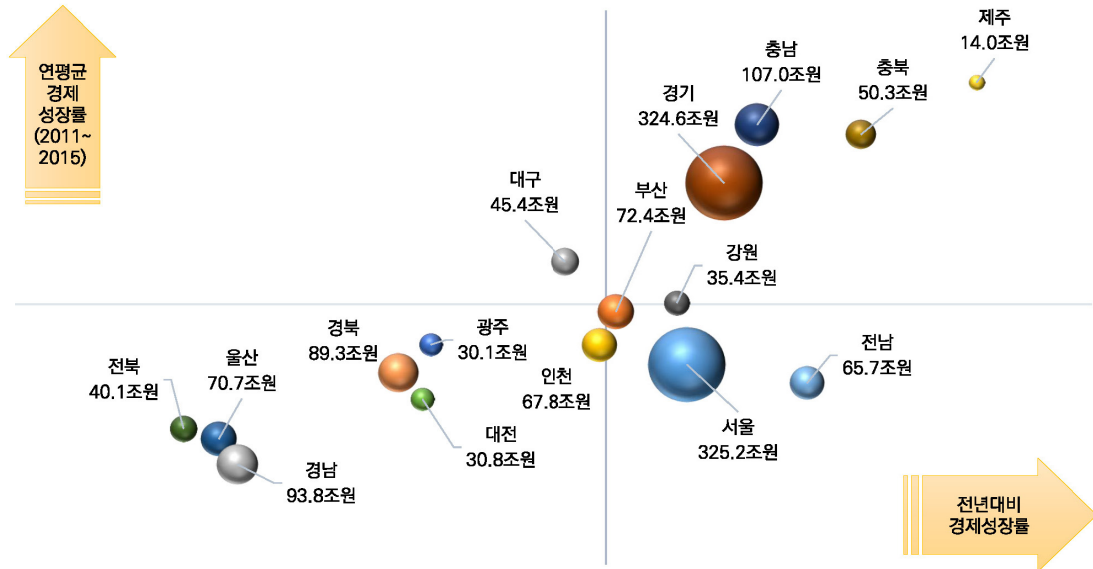
주 : GRDP는 2010년 기준년가격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15년 기준 전국대비 비중, 전년대비는 2014년 대비 2015년의 증감률,

CAGR은 최근 5년(2011년~2015년) 간의 연평균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017년 6월 30일 공표)

I. 충북경제의 현 주소

시도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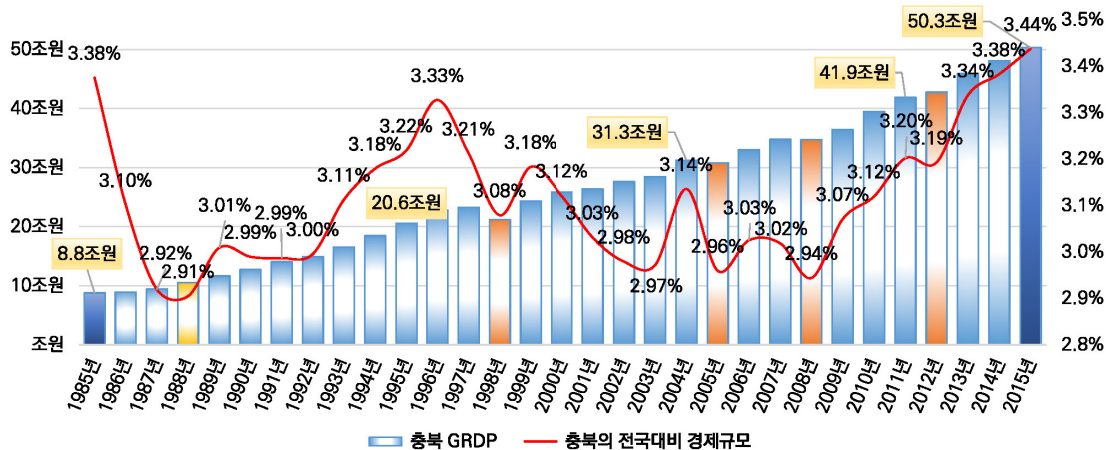


주 : 각 축은 전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이고, 원의 크기는 시도별 2015년 GRDP 규모를 의미함

I. 충북경제의 현 주소

충북의 GRDP 및 전국대비 GRDP 비중 추이

- 충북의 전국대비 경제규모는 3%대에서 고착화, “魔(?)의 3% 경제”
- 충북의 GRDP 점유율은 1985년 3.38%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을 기점으로, 최근의 경제성장세가 두드러지며 2015년에는 가장 높은 3.43%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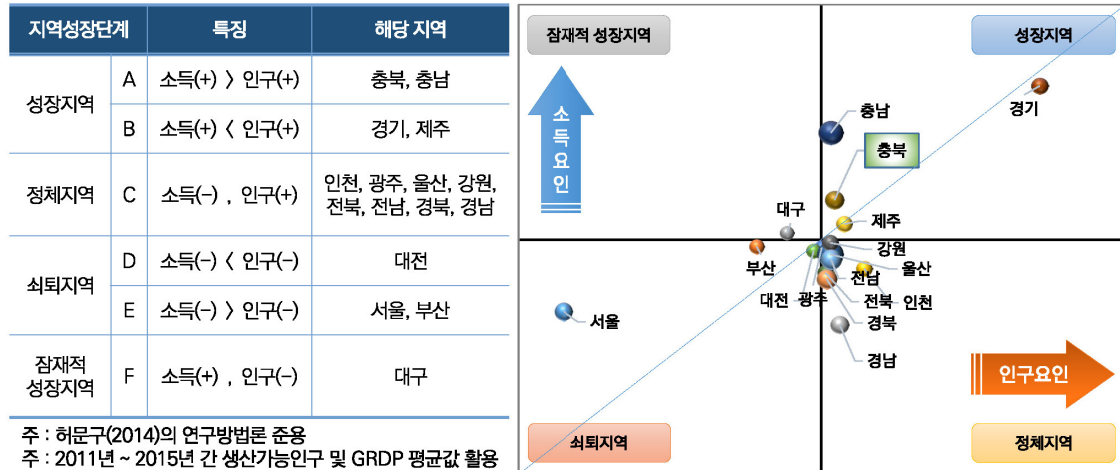


I. 충북경제의 현 주소

지역경제성장단계

○ Klaassen(1981)의 지역순환가설(Regional Cycle)을 응용한 지역경제 성장패턴 분석 결과,

- 충북은 생산가능인구 및 GRDP가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지역**으로 분류됨
-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I. 충북경제의 현 주소

1인당 지역내 총생산

○ 2015년 충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2,990천원(전국 6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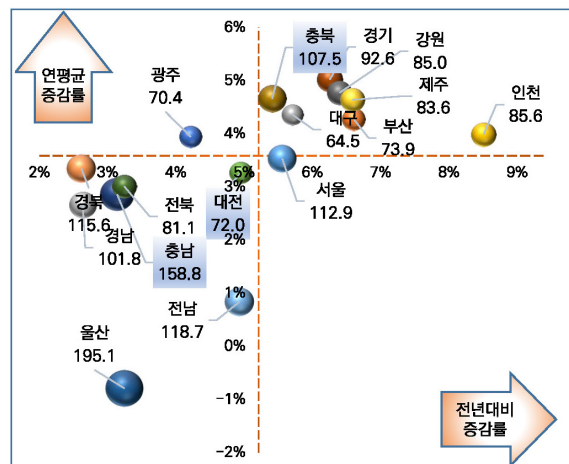
- 전국의 107.5% 수준
- 전년대비 5.01%(전국 8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4.66%(전국 3위) 각각 증가하였음

〈시도별 1인당 GRDP〉

(단위 : 천원, %, 위)

	2015년	전국대비	증감률			
			순위	전년대비	CAGR	순위
전국	30,682	100.0	순위	4.81	순위	3.58
대전광역시	22,084	72.0	14	4.54	9	3.26
충청북도	32,990	107.5	6	5.01	8	4.66
충청남도	48,733	158.8	2	2.74	14	2.85

주 : 1인당 지표는 장래인구추계결과(2017. 06 공표) 기준,
전년대비는 2014년 대비 2015년의 증감률,
CAGR은 최근 5년(2011년~2015년) 간의 연평균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I. 충북경제의 현 주소

1인당 지역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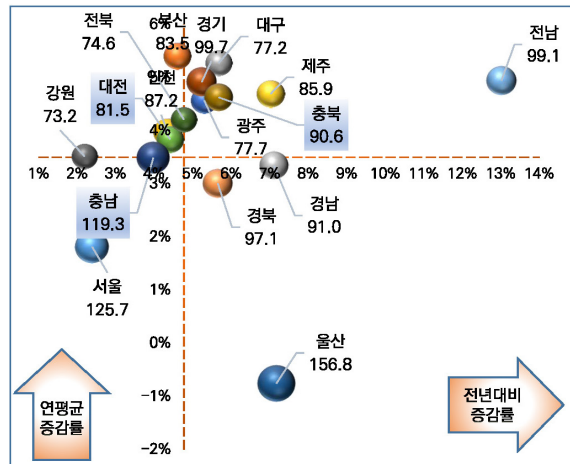
○ 2015년 충북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7,878천원(전국 8위)임

- 전국의 90.6% 수준
- 전년대비 5.67%(전국 6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4.62%(전국 6위) 각각 증가하였음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단위 : 천원, %, 위)

	2015년	전국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CAGR	
전국	30,766	100.0	순위	4.77	순위	3.50
대전광역시	25,077	81.5	12	4.41	12	3.83
충청북도	27,878	90.6	8	5.67	6	4.62
충청남도	36,713	119.3	3	3.98	14	3.49

주 : 1인당 지표는 장래인구추계결과(2017. 06 공표) 기준,
전년대비는 2014년 대비 2015년의 증감률,
CAGR은 최근 5년(2011년~2015년) 간의 연평균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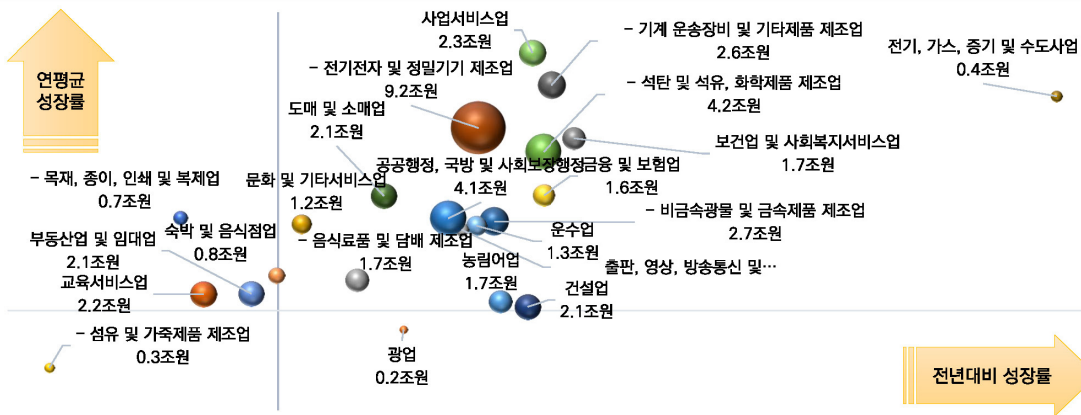


II. 충북경제의 성장 요인

II. 충북경제의 성장 요인

산업측면

- **농업부문의 선전, 제조업부문의 지속적 약진, 서비스업부문의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
 - 제조업의 약진과 더불어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패키지 분야라 할 수 있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공장 가동), 건설업(산업단지 조성, 건설투자), 금융 및 보험업(신용보증), 운수업(물류), 사업서비스업(제조업 지원) 등이 동반 성장
 - 충북혁신도시의 정착에 따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이 성장
 - 생산적 일자리 등 각종 복지정책의 확장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이 성장
- **제조업 일변도에 가깝던 성장원이 여타 부문으로 확장되며 성장동력이 다각화되고 있음**



II. 충북경제의 성장 요인

산업측면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Growth Contribution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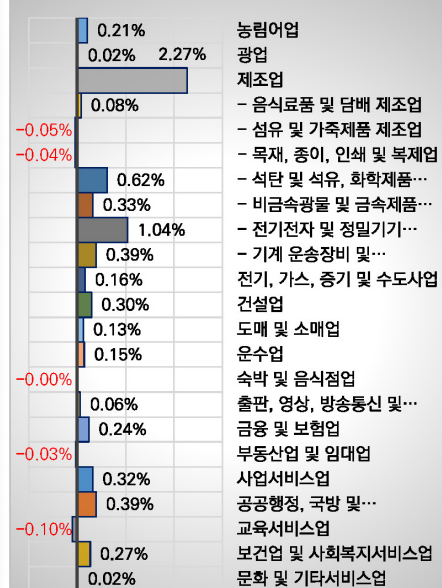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SK 하이닉스, 매그나칩),
-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LG화학),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현대모비스, 대창모터스),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태양금속, 우진플라임),
- 사업서비스업, 건설업(원건설, 대원건설) 등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산업부문이 경제성장에 큰 기여

○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과거 경제성장의 코어역할을 해왔던

-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 충북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 경기 위축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 생산재 및 중간재 공급형 산업기반을 지닌 것도 일조함
- 반도체, 2차 전지, 부품 등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II. 충북경제의 성장 요인

충북경제의 성장 잠재력

○ 인구. 지리적 요인

- 인구증가세의 지속 : 외부에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교통망이 충북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함
-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잠재적 수요가 높음
- 충북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연계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 ICT 관련 2개, 교육 관련 5개, 과학기술. 공공서비스 관련 4개 기관 등 11개 기관
-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대청호 및 충주호)

○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

- 도민참여를 통해 **2020년 4% 경제 달성이라는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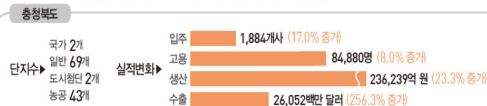
II. 충북경제의 성장 요인

충북경제의 성장 잠재력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인 투자의 증가세 지속

○ 투자? 신규 투자유치, 기존 기업의 증설투자, SOC 투자, R&D 투자

- 각종 경제 인프라(수자원, 전력, 도로망 등) 확충과 더불어
기업친화적 투자여건 조성 및 적극적 지원을 통한 신규 투자유치 및 증설투자 확대
 - * LG화학('10), 한화첨단소재('10), 셀트리온('10), 오뚜기('14), 리비콘('14), 태양금속공업('14), 우진플라임('14), SK 하이닉스, 한화큐셀코리아, 팜스코 등 대규모 투자유치의 효과 가시화가 기대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세 지속



○ 국가 및 지방산단 조성을 통한 업종간 협업 및 가치사슬체계 구축

- 중부권 : 청주 ; 반도체, 화학, 화장품, (MRO) / 오송 ; 바이오 / 오창 ; 정밀화학, ICT
진천/음성 ;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 괴산 ; 유기농
- 북부권 : 충주 ; 당노 및 한방 바이오 / 제천 : 기계 및 자동차 부품
- 남부권 : 옥천 ; 의료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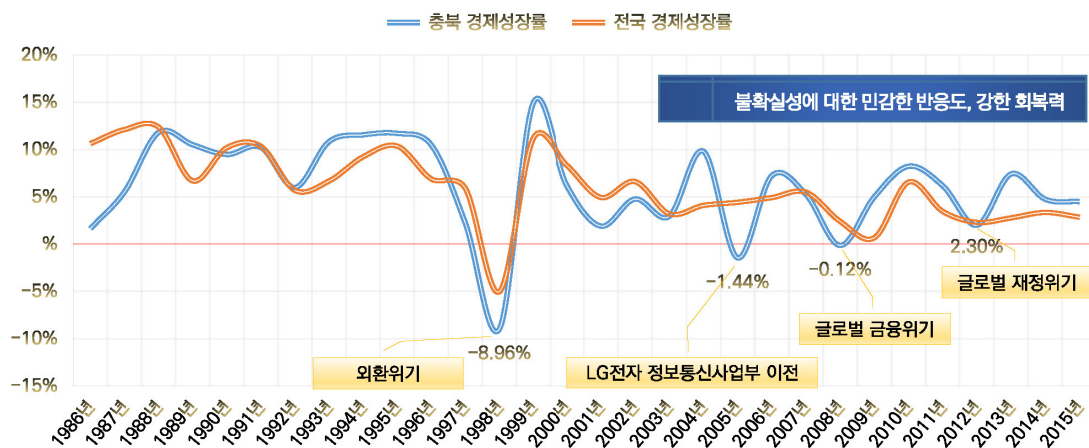
Ⅲ. 충북경제의 특징

Ⅲ. 충북경제의 특징

16

충북경제의 전반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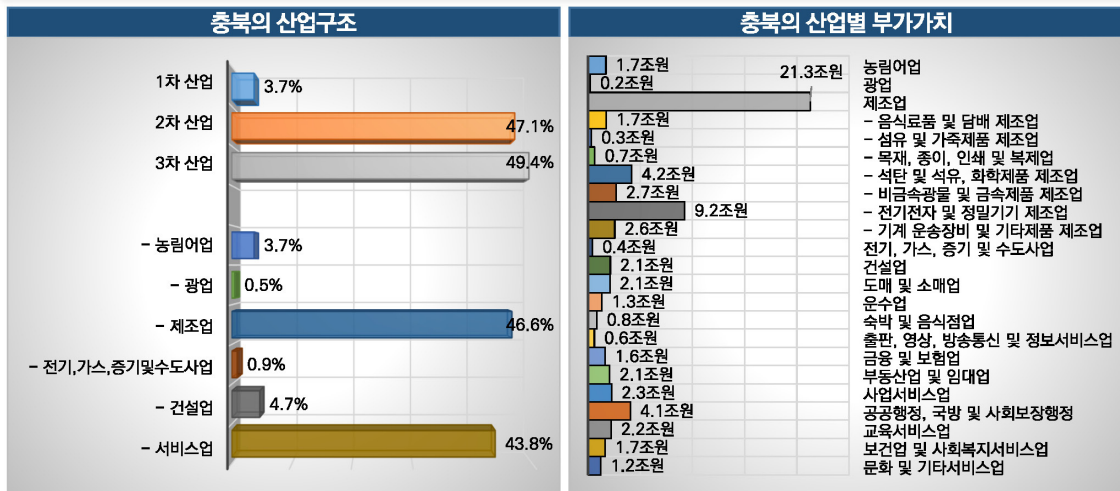
- 충북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2005년 LG전자 정보통신사업부의 평택이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
- 최근 들어, **외부충격에 대한 반응 폭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Ⅲ. 충북경제의 특징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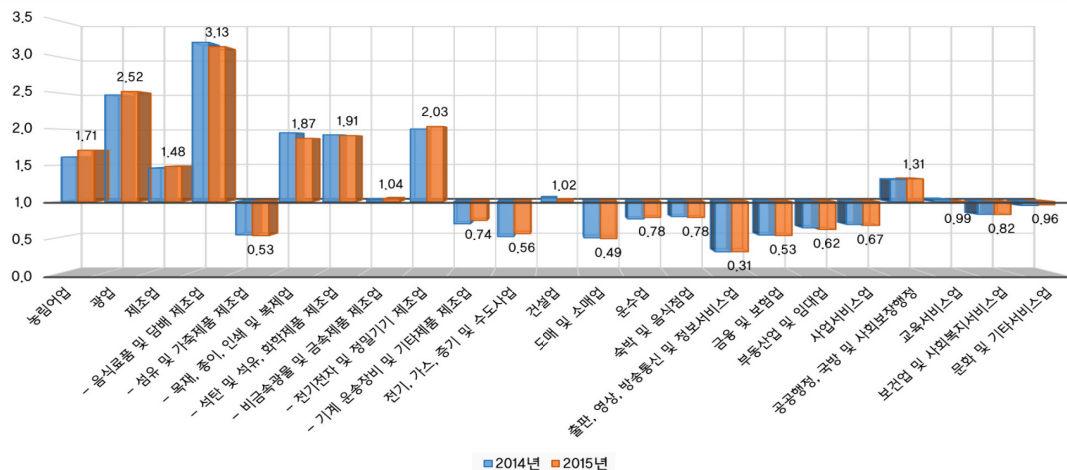
- 전국은 1차 산업 2.2%, 2차 산업 31.6%, 3차 산업 66.2%로 구성된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반면,
- 충북은 2차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47.1%(전국은 31.6%)에 달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
 -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화학제품, 기계장비, 태양광 등 첨단 기술집약적 산업군이 주도



Ⅲ. 충북경제의 특징

산업별 특화도 - LQ지수

- 부가가치 LQ지수를 기준으로,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광업,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의 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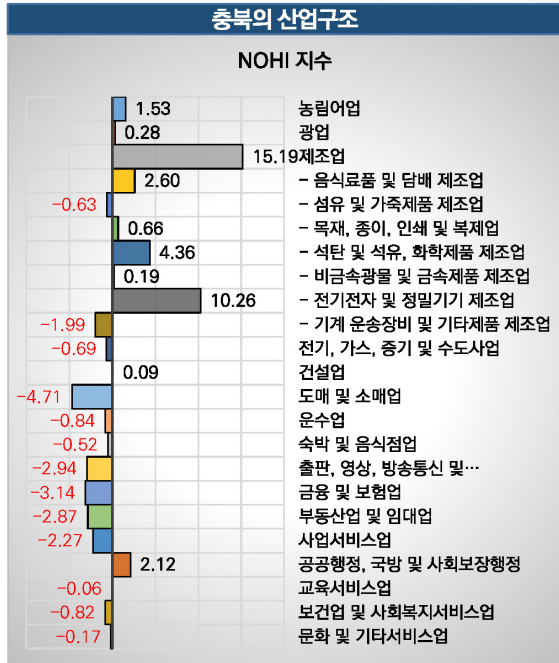
Ⅲ. 충북경제의 특징

산업별 특화도 - NOHI지수

○ NOHI(Nam-Oh-Hong Index) 지수 분석결과,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농림어업
-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 광업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 건설업 부문의 상대적 특화도가 높음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은 상대적 특화도가 상승하는 추세임



Ⅳ. 충북경제의 문제점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해결해야 할 과제들

○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

- 제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
-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신흥국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낮다는 것은 위험분산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창출력 vs 고용유발효과
- 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헷지체계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대비가 필요
-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 관련 중간재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지역내총생산의 증가 속, 높은 역외유출 현상 발생 - 풍요속의 빈곤

- 충북은 한국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측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시현, 반면 소득은 생산증가 속도에 미달하고 있음
- 이는 창출된 부가가치 중 일부가 지역 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거나, 분배된 소득이 충북 내에서 귀착·환류되지 못하고 역외에서 소비되고 있음을 의미함
- 양적 발전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도약이 필요

○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수준, 이에 따른 높은 이직률

○ 고령화의 가속에 따른 재정압박 우려

○ 높은 수도권 의존도로 인한 지역 간 및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 대두

...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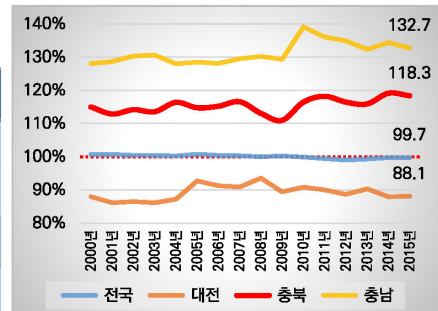
역외유출율

○ 충북의 소득 대비 생산 비율은 118.3%로 생산에 비해 소득이 적은 상황임

- 충남(134.3%), 울산(124.1%), 전남(119.5%), 경북(118.7%)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임
- 생산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것은 충북 근로자의 세종, 대전, 천안 등 타지역 진출에 따른 통근인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 고소득 일자리의 상대적 부족, 충북의 추계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음

〈1인당 지역내총소득 대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비율〉
(단위 : p,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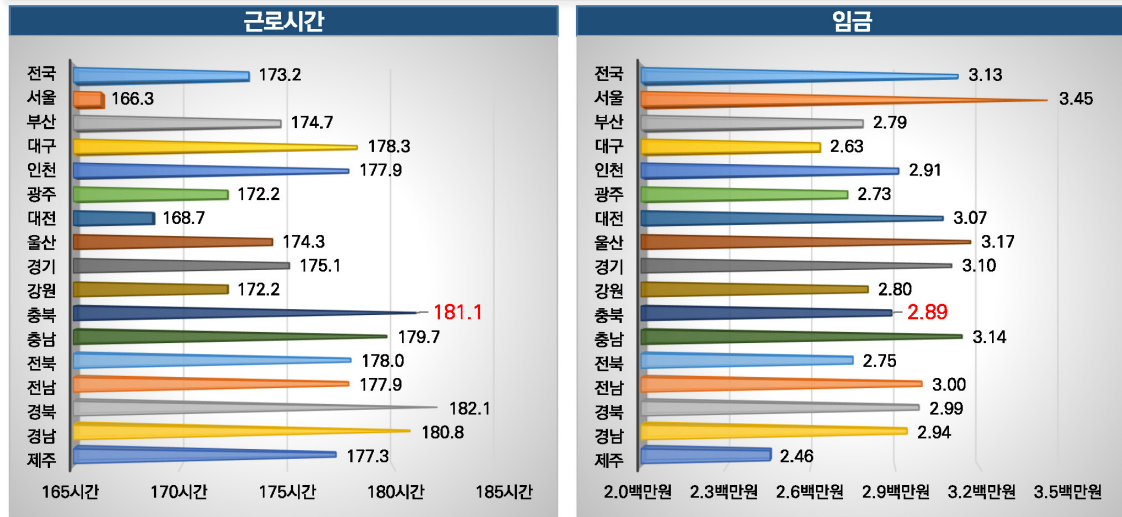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순위	전국	순위	전국	순위	전국	순위	전국	순위
전국	99.4	99	99.3	99	99.7	99.7	99.7	99.7	99.7	99.7
대전광역시	90.0	14	88.7	13	90.3	12	88	13	88.1	15
충청북도	118.2	4	116.4	6	115.9	6	119.1	5	118.3	5
충청남도	136.1	2	134.9	2	132.3	1	134.3	1	132.7	1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긴근로시간, 낮은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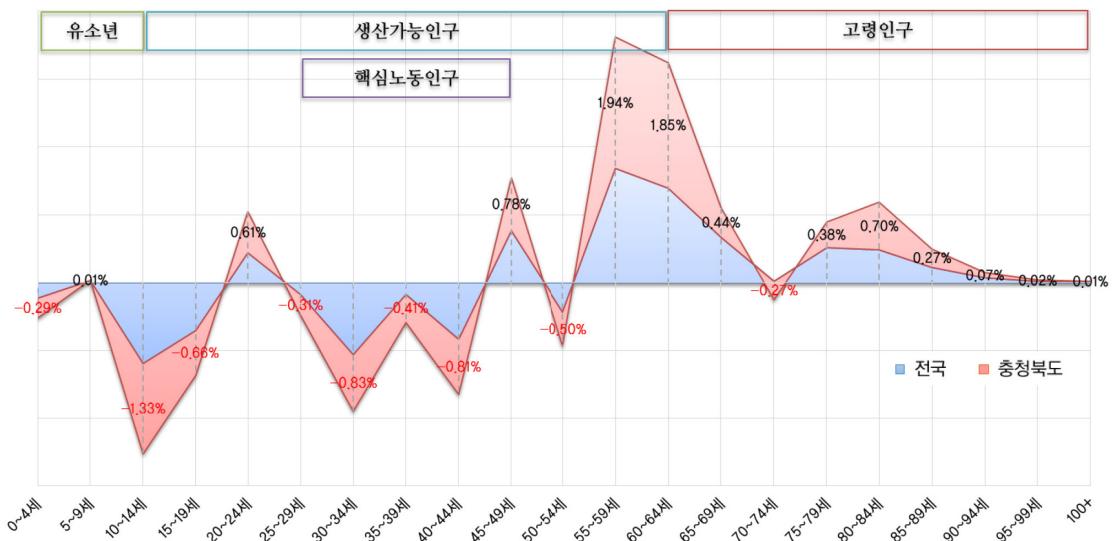
- 충북의 월 근로시간은 181.1시간으로 경북(182.1)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임
- 한편, 충북의 상용근로자 월 급여액은 289만원으로 전국 10위 수준임 에 그치고 있음 (서울의 83.8%)
 - 이는 충북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고령화의 가속

- 충북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증가 기여도가 높은 연령대는 55세 이상의 장년층임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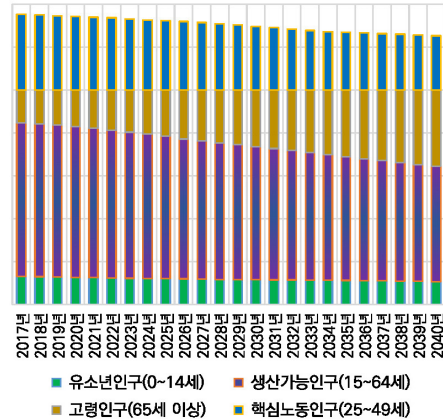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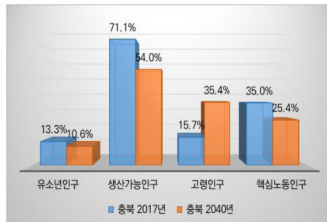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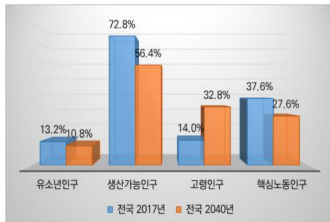
고령화의 가속

- 2017년 8월, 충북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 13.3%, 생산가능인구 71.1%, 고령인구 15.7%로 구성
 - 전국에 비해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높은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낮음
 - 이미 **고령사회**이고,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인구구조 현황 및 전망〉

(단위 : %, %p)

구 분	전국			충북				
	17년	40년	증감	17년	전국차	40년	전국차	증감
유소년인구	13.2	10.8	-2.4	13.3	0.1	10.6	-0.2	-2.7
생산가능인구	72.8	56.4	-16.4	71.1	-1.7	54.0	-2.4	-17.1
고령인구	14.0	32.8	18.8	15.7	1.7	35.4	2.6	19.7
핵심노동인구	37.6	27.6	-10.0	35.0	-2.5	25.4	-2.2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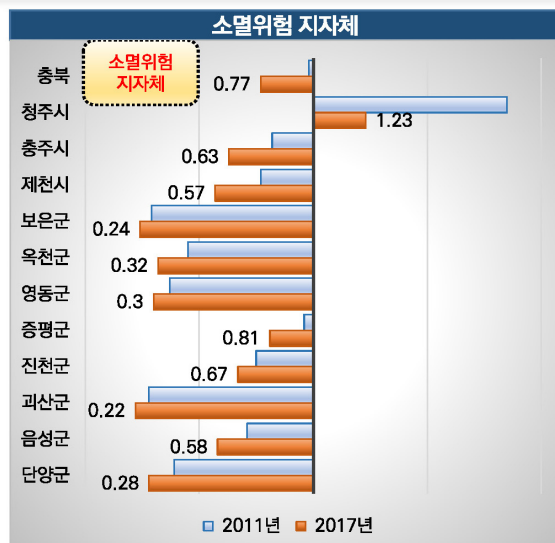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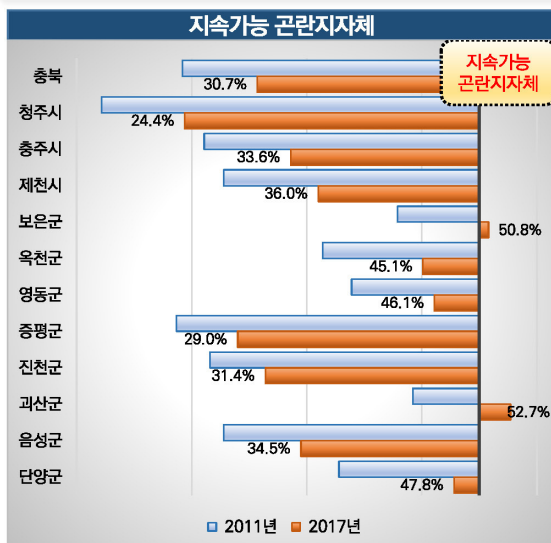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고령화의 가속

- 충북의 경우, **과산과 보은은 지속가능 곤란지자체에** 진입하였고,
 청주를 제외하면 모든 시군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27

높은 수도권 의존도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 활용, 가계의 민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충북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소비증가는 서울과 경기의 부가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상위 업종	서울	지역	상위 업종	인천	지역	상위 업종	경기	지역	상위 업종	대전
서울	도소매서비스	4	서울	도소매서비스	5	서울	도소매서비스	5	서울	도소매서비스	5
서울	운송서비스	9	서울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9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서울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서울	부동산 및 임대	3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서울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6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경기	도소매서비스	10	경기	부동산 및 임대	9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	인천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	경기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9	대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인천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경기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	대전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서울	교육서비스	3	인천	부동산 및 임대	2	경기	부동산 및 임대	1	대전	부동산 및 임대	3
서울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7	인천	교육서비스	3	경기	교육서비스	2	대전	교육서비스	2
서울	문화 및 기타 서비스	5	인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7	경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8	대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7
경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	인천	문화 및 기타 서비스	6	경기	문화 및 기타 서비스	6	대전	문화 및 기타 서비스	6

지역	상위 업종	충북	지역	상위 업종	충남	지역	상위 업종	광주	지역	상위 업종	전북
서울	도소매서비스	4	서울	도소매서비스	4	서울	도소매서비스	6	서울	도소매서비스	5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9
서울	부동산 및 임대	2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경기	부동산 및 임대	10	경기	부동산 및 임대	9	경기	부동산 및 임대	9	경기	부동산 및 임대	8
충북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	충남	농림수산물	10	광주	도소매서비스	10	전북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
충북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	충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광주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전북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충북	부동산 및 임대	1	충남	부동산 및 임대	3	광주	부동산 및 임대	3	전북	부동산 및 임대	6
충북	교육서비스	3	충남	교육서비스	2	광주	교육서비스	2	전북	교육서비스	2
충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6	충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6	광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7	전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3
충북	문화 및 기타 서비스	5	충남	문화 및 기타 서비스	5	광주	문화 및 기타 서비스	5	전북	문화 및 기타 서비스	7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28

높은 수도권 의존도

지역	상위 업종	전남	지역	상위 업종	대구	지역	상위 업종	경북	지역	상위 업종	부산
서울	도소매서비스	5	서울	도소매서비스	5	서울	도소매서비스	3	서울	도소매서비스	7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0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0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9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9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서울	부동산 및 임대	2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서울	부동산 및 임대	5
경기	부동산 및 임대	8	대구	도소매서비스	9	경기	부동산 및 임대	8	부산	도소매서비스	8
전남	농림수산물	9	대구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	경북	농림수산물	10	부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
전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	대구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경북	금융 및 보험 서비스	6	부산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
전남	부동산 및 임대	4	대구	부동산 및 임대	1	경북	부동산 및 임대	7	부산	부동산 및 임대	1
전남	교육서비스	2	대구	교육서비스	3	경북	교육서비스	2	부산	교육서비스	2
전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3	대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7	경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5	부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6
전남	문화 및 기타 서비스	6	대구	문화 및 기타 서비스	6	경북	문화 및 기타 서비스	4	부산	문화 및 기타 서비스	4

지역	상위 업종	울산	지역	상위 업종	경남	지역	상위 업종	강원	지역	상위 업종	제주
서울	도소매서비스	6	서울	도소매서비스	7	서울	도소매서비스	6	서울	도소매서비스	7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서울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서울	부동산 및 임대	3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서울	금융 및 보험 서비스	8	서울	부동산 및 임대	3
부산	부동산 및 임대	9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0	서울	부동산 및 임대	1	제주	농림수산물	10
울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	경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	경기	부동산 및 임대	9	제주	도소매서비스	9
울산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경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강원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제주	금융 및 보험 서비스	6
울산	부동산 및 임대	1	경남	부동산 및 임대	2	강원	부동산 및 임대	3	제주	부동산 및 임대	1
울산	교육서비스	2	경남	교육서비스	3	강원	교육서비스	2	제주	교육서비스	2
울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5	경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5	강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7	제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4
울산	문화 및 기타 서비스	7	경남	문화 및 기타 서비스	6	강원	문화 및 기타 서비스	5	제주	문화 및 기타 서비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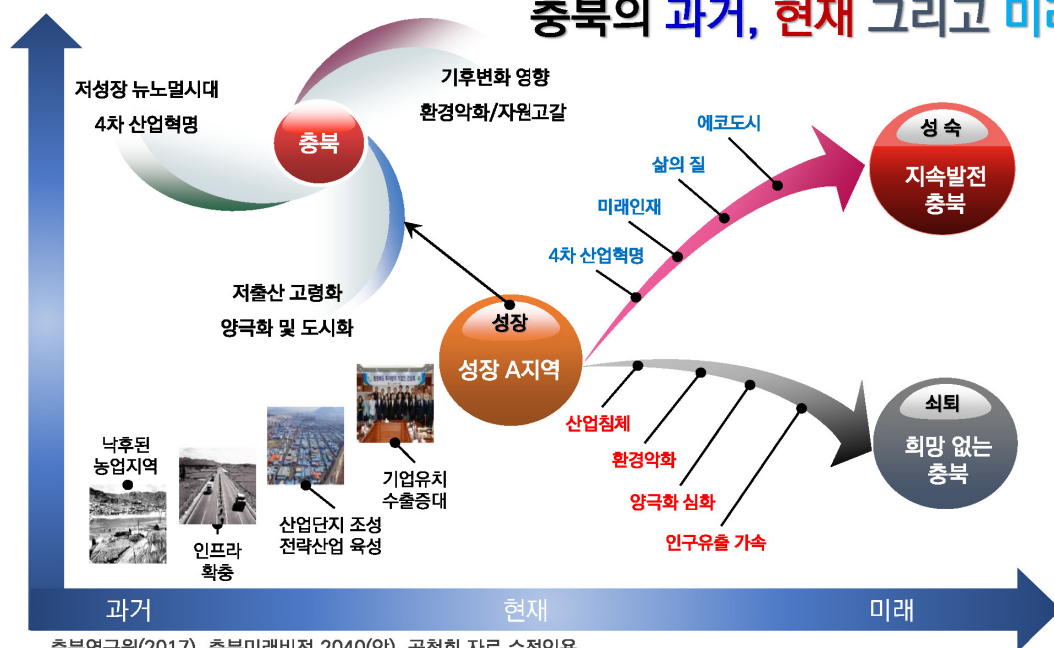
V.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 도약을 위해서

V.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 도약을 위해서

30

다양한 위험요인과 도전에의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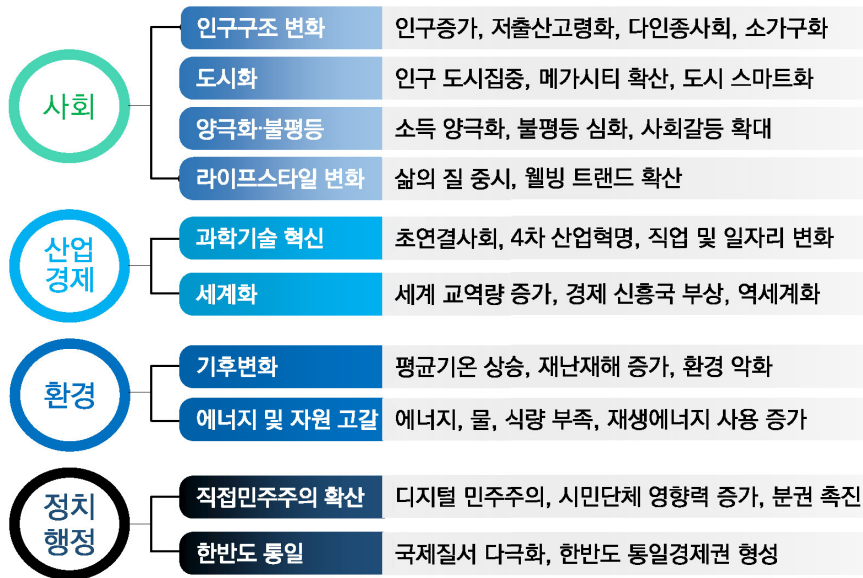
충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V.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 도약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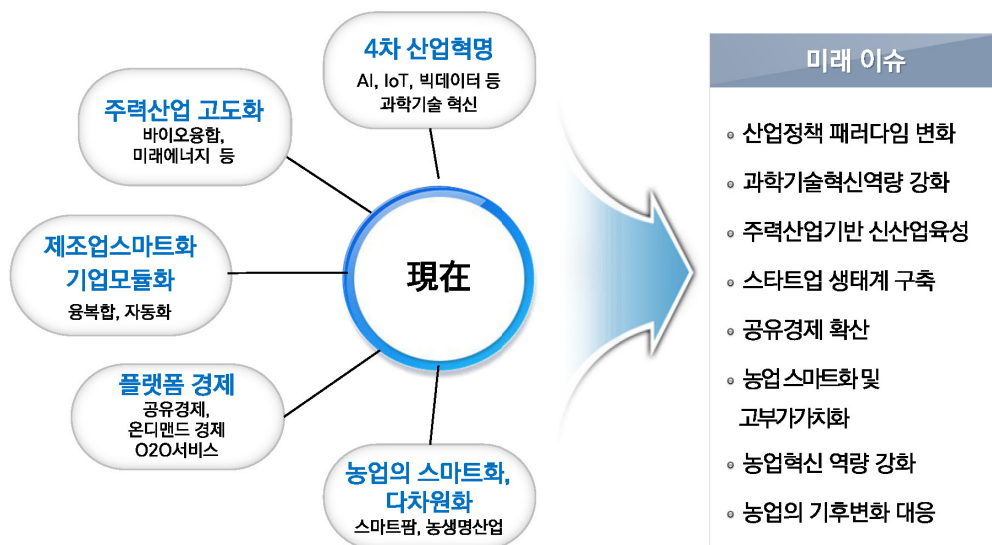
미래의 메가 트렌드

○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구조적 변화의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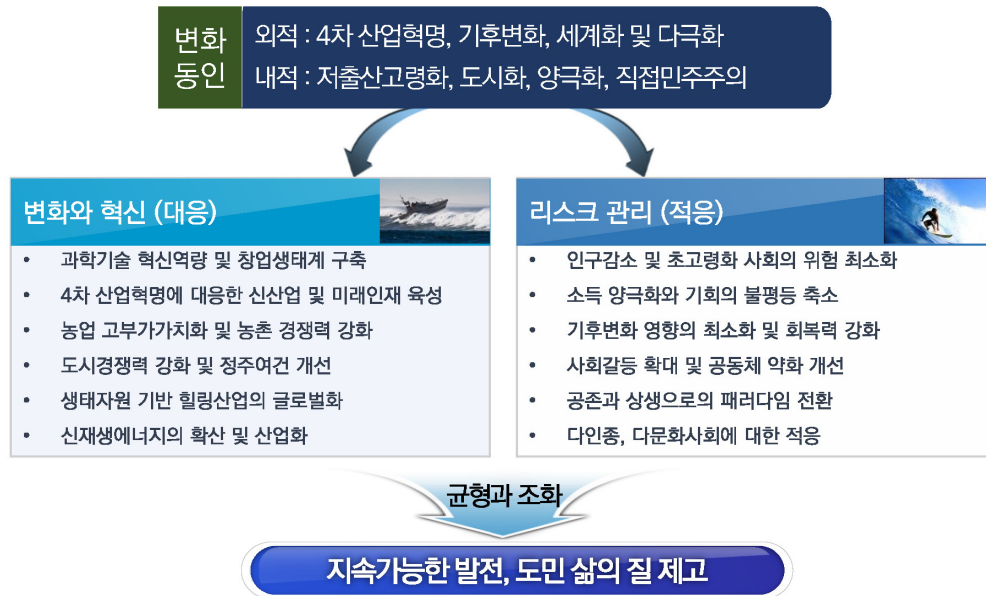
V.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 도약을 위해서

미래의 메가 트렌드 - 산업경제 측면



V.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 도약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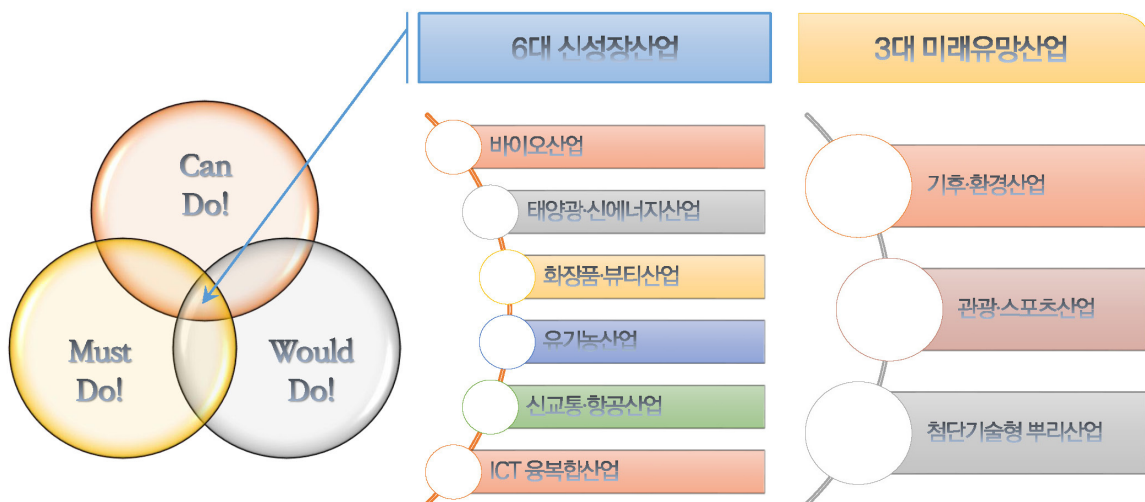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충북의 정책대응 방향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충북의 6+3 신성장산업

- Step up을 넘어 Quantum Jump로!
- 충북경제 4% 시대 구현을 견인할 중점 육성산업으로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미래유망산업을 선정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충북의 6+3 신성장산업

○ 6대 신성장산업

- 2010년부터 신성장동력 6대 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육성 중에 있음
- 기술집약적인 동시에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거대 시장의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산업군임
- 특히 바이오산업과 화장품, 뷰티 산업 육성에 장기간 주력해온 결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파리기후협정 결과,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북의 주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3대 미래 유망산업

- 6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제조업 중심이라면 3대 미래유망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적절한 융합을 추구함
- 글로벌 트렌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고령화 및 청년실업, 여가활동 증대 등)에 부합하는 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음

IV. 충북경제의 문제점

내발적 발전의 키포인트 - 투자



-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민간소비 유도?
- 국비확보를 통한 정부지출 증가?
- 외생성(환율)이 강한 순수출 증가?

~ 至難 ~

○ 내발적 발전의

- Key Man은? 기업
- Key Point는? Investment, R&D
- 마중물은?
충청권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GRDP를 창출하고 내발적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업의 민간투자 수요를 진작시키고, 이를 여타 부분으로 확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VI. 충청권의 경제협력

VI. 충청권의 경제협력

38

연계 및 협력

○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이란

- 동종 또는 이종의 콘텐츠로 서로 연계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역(거점) 간에 서로 합심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사업권한과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으로 편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의 과정 : 인지 → 연계 → 협력 → 신뢰의 4단계

- 인지는 연계 · 협력의 상대 또는 주체를 아는 것
- 상호간 협력의 필요를 인지하면 회의나 MOU, 계약 등의 형식을 통해 공식적·물리적 연계가 이루어짐
- 협력의 경우 콘텐츠(공동 구매, 연구개발 등)가 있어야 하고,
-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가 구축될 경우 높은 성과가 나타나게 됨

VI. 충청권의 경제협력

39

충청권의 경제협력 방향

-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기는 하나, 국가의 중심에 위치한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코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위적 문제라 할 수 있음
 - 장애물은? 낙수효과 이론의 실증 부재로 인한 주도지역 문제, 높은 수도권 의존도 등
 - 단기적 방향 : 충청권 상호 연계 · 협력 체계 하에서, 수도권 의존도 완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시스템 구축
 - 중장기적 방향 : 연계 · 협력의 지속을 통한 신뢰구축 하에서, New First-Mover 산업 발굴 및 공동 육성

○ 카펠린(R. Cappellin)의 지역 간 연계·협력의 성공요인

- 상호 이해와 신뢰가 기반이 될 것
- 기존에 네트워크 경제가 있을 것
- 공통의 자원을 함께 조화롭게 이용할 것
-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일정수준의 규모를 달성할 것
- 범위의 경제를 도모할 것
- 다양한 거래비용을 줄일 것
- 개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 지역 간 경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을 감소시킬 것

자료 : R. Cappellin. 1993.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Europe: An Introduction". R. Cappellin & P.W.J. Batey(eds). Regional Networks, Border Regions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 Pio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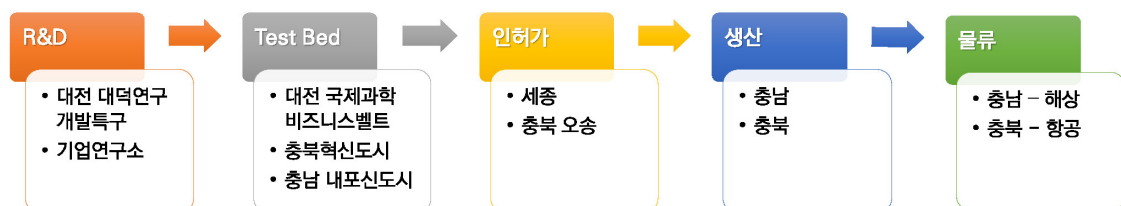
VI. 충청권의 경제협력

40

충청권의 경제협력 방향 - 단기

- 다양한 분석결과, 충청권은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수도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충청권이 권역내 협력보다는 수도권과의 개별적 연계를 통해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높은 수도권 의존도 완화를 통해 지역의 노력이 역내에서 환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충청권 중심의 GVC(Global Value Chain)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GVC 구성요소별 지역특화(안)



VI. 충청권의 경제협력

충청권의 경제협력 방향 - 장기

○ NEW 퍼스트무버(first-mover) 산업 발굴 및 공동 육성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산업을 개편하고 있는 추세임**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산업간 기술 이전 및 융복합이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지역주력산업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경제협력권 현행		경제협력권 개편(안)
대전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무선통신융합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전	주관 : 기능성화학소재 참여 : 광·전자 융합, 지능형기계	주관 : 에너지(에너지 워터그리드 통합기기 등) 참여 : 바이오헬스(특화기능성 소재 등)
충북	바이오헬스, 반도체,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부품, 태양광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부품소재	충북	주관 : 화장품뷰티 참여 : 의료기기, 이차전지	주관 : 에너지산업(태양광 및 풍력 기반 융합부품 등) 참여 : 프리미엄소비재(화장품뷰티 등)
충남	동물식의약, 자동차부품, 인쇄전자, 디스플레이,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충남	주관 : 기계부품, 이차전지 참여 : 기능성화학소재	주관 : 바이오헬스(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등) 참여 : 프리미엄소비재(프리미엄 뷰티제품 등)
세종	바이오소재, 자동차부품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계부품	세종	주관 : - 참여 : 기계부품	주관 : 첨단신소재(고강도·경량화 금속 등) 참여 : 바이오헬스(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등) 전기·자율차(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부품 등)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17.10.19) 재구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품목 수요조사 공고 재구성

